‘도민들이 수도권 이주 않도록’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균발위, 새만금 · 전북특별자치도 공약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김두관·송기도 상임위원장)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전략 중 하나인 ‘5극 2특 체제’에서 새만금·전북 특별권역이 포함된 ‘5극 3특 체제’의 후보 공약 변화 배경과 기존 7대 전북공약에 최근 추가된 ‘국립 전북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대해 자세히 밝혔다.

또, 전주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공약도 발표했다.

균발위는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공약에서 5극 3특 체제의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은 전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업·문화·교육·의료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이나 큰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조직혁신지원단장 김윤덕 국회의원, 나를위한정책위원회 김윤태 공동위원장, 균형발전위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5극 3특 체제’로의 후보 공약 변화에 대해 ‘전북 3중 차별론’을 극복하고,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을 통해 전북 전체를 성장 발전시키고, 중앙정부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주요 정책은 ▲신행정수도 세종시의 배후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전기차, 탄소, 스마트 농업 등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거점 구축, ▲새만금권역 단일 경제공동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의 단일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수도권 지하철과 유사한 광역교통망 구축,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 ▲전북과 접경한 전남, 충남, 경북, 경남을 관통해 국내와 해외까지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통한 경제성장 등이다.

또한 ‘전북 스포츠콤플렉스’ 공약은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일대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육상, 승마, 야구, 테니스, 농구, 유도, 탁구 등 26개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시설은 유소년 및 중·고등 스포츠선수단 등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비시즌 기간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개 시·군 지역공약으로는 ▲전주시 = 컨벤션센터 건립, 버추얼 스튜디오 건립 통한 ‘전주영화특별시’ 육성, ▲익산시 = 중앙동 및 창인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그린바이오산업 성장기반 확충, ▲군산시 =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및 조선업 회생, 버스터미널 현대화, ▲정읍시 =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 의료산업 기반 확충, ▲남원시 =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김제시 = 그린 바이오 산단 조성,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 통한 청소년 농업인 육성, ▲완주군 = 폐교 활용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 중대형 수소차 특화도시 육성, ▲진안군 = 의료원 재정문제 완화, 바이오홍삼 스마트팜 혁신센터 건립, ▲무주군 =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무주구천33경 관광명소화, ▲장수군 =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 교통환경 개선, ▲임실군 =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임실치즈산업 고도화, ▲순창군 = 루지테마파크장 조성, 친환경농업 전환, ▲부안군 = 서해권 노을해양공원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고창군 =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 지원, 심원염전 염습지 복원 등을 내놓았다.

균발위는 “전북 시·군의 시급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투표소 입구 · 표지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전북선관위, 대선 (사전)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유호상 기자

“교육 대전환 적임자” | 도내 학부모 5786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 지역 학부모 5,768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발표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대전환을 위한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경애 전주시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 지지선언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교육불평등 해소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학생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권, 교육복지와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공정교육, 평등교육, 상생교육으로의 대전환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공교육은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학입시와 공교육을 분리해야만 병든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전가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내 학부모 5768명의 대표자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발표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대전환을 위한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학비리 근절 천명,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진정성 등을 거론하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할 줄 아는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대개혁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768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선언 명단을 민주당 전북도당에 전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나를 위해”… 도내 단체들, 이재민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❶전주시 여성체육동호인 1만여명의 대표자들이 3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❷이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도내 20대 남성 111명의 대표자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❸꿈드래장애인협회 회원 2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를 선언 한 뒤 지지자 명단을 김성주 민주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❹전북 숲해설가 200명도 이어 회견을 열고 산림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시민 행복 · 민생 안정 초점”

익산 대학생 250명 · 청년연대 350명, 이재명 지지 선언

익산 대학생 250명과 익산 청년연대 350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익산역 앞 유세현장에 모인 익산 대학생 250명과 익산 청년연대 350명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독려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린 청년연대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은 항상 실천했고, 그 실천의 초점은 항상 시민의 행복과 민생의 안정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콤한 공약은 누구나 외칠수 있지만, 약속을 지켜내는건 아무나 하지 못한다”며 “공약이행률 96%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 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상린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라면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독자적 성장이 가능한 전북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진형석 도의원·전성호(4050위원회 전북본부 공동위원장) 외 전국지역 청년연합 대학생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미래세대의 희망인 2030세대가 앞장서서 지지선언에 나서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독려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 · 임실 · 순창 특보 6966명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남원, 임실, 순창의 특보단 6,966명은 지난 2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임실·순창의 성장과 발전 및 촛불정신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보단은 “우리는 전염병 확산과 민생경제 침체, 기후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 저 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보단은 ▲추경 17조원 지원 및 이재명 후보 당선 후 경제부스터샷 ▲지역화폐 예산 대폭확대와 기본소득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약 등을 열거하며 위기에 강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저 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극복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 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의 경우 ▲서남대 폐교에는 공공의대를 설립 ▲남원의료원 부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야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섬진강댐 홍수통제소 설치 등이다.

특보단은 또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60대 초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년수당 지급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을 4개까지 지원 등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민주 대전환 선대위 미래로소통 전북,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속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라북도위원회 (이하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북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라북도의 성장을 기대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미래로소통위원회 전북도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부활과 - 금융?탄소소재 산업 등의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지 -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육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새만금 친환경 개발 및 공항.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재명 후보를 꼭 대통령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보복이 횡행하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참모들이 준비한 원고대로 읽기만 하는 무능력한 후보에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나라를 망치고 청년, 여성, 우리 아이들, 어르신의 행복과 전북을 망치고 국민의 삶을 망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에 대한 약속을 당당하게 밝힌 위기에 강한, 실적으로 능력을 증명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며 “반드시 4일과 5일 사전투표와 오는 9일 본 선거일, 꼭 투표장을 방문해 전북의 미래를 밝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 대한미용사회 미용사 회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경숙 국회의원은 3일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대한미용사회 전주시 미용사 회원이 주최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식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과 정책 성과를 신뢰하며, 미용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K뷰티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뷰티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